

## 불황 때문에…

## 결혼·이사도 안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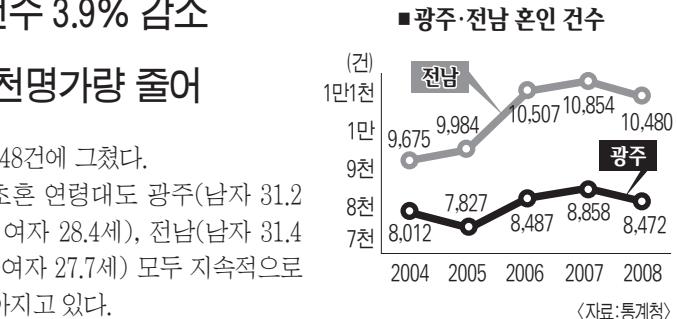
광주·전남지역 혼인건수 3.9% 감소

인구이동도 전년比 4천명가량 줄어

박모(34·회사원)씨는 언제 풀릴지 알 수 없는 경기불황 때문에 결혼할 업무가 안 난다. 나이는 꽤 커는데, 결혼 자금으로 투자한 펀드는 반 토만났고 작년 말부터는 보너스도 못 받고 있다. 박씨는 고민 끝에 약혼녀에게 1~2년 후에 결혼식을 올리라고 설득 중이다.

결혼과 이사를 미루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가장은 이거나, 자녀 교육·취업 등을 위해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인생의 중대사이긴 하지만, 불황에 밸류미 잡혀 하는 수 없이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혼인통계와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혼인건수는 1만8천952건(광주 8천472건, 전남 1만480건)으로 전년도보다 760건(3.9%)이 감소하면서 2005년 이후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남의 경우 농촌총각과 외국 여성과의 결혼도 전년보다 4% 줄어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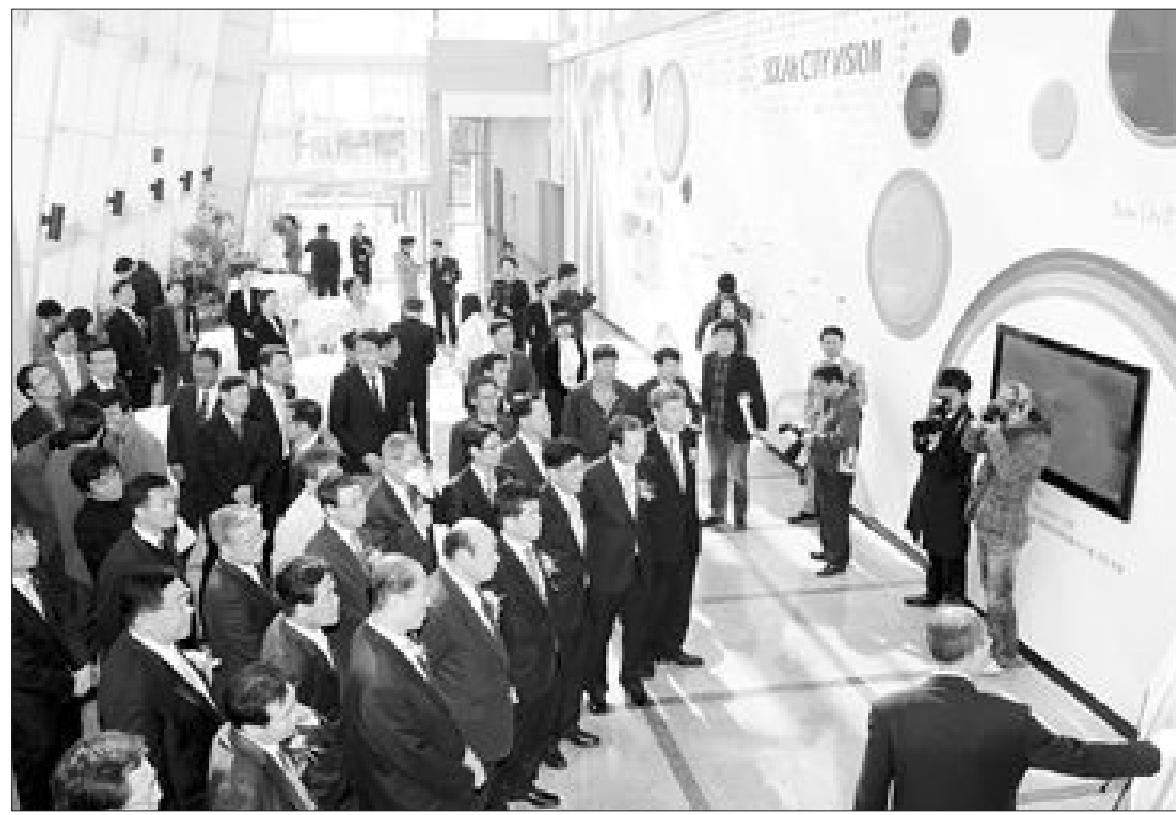
전입자가 1천명이 더 많았는데, 올해는 전입·전출자수가 동일했다. 대부분 전남 출신인 전입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광주 거주를 포기했다는 의미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2월 이동자 수는 84만8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만2천 명(-5.7%) 감소했으며, 전입신고 건수는 48만8천 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2천 건(-4.3%) 줄었다.

인구이동도 줄었다. 지난 2월 총 이동인구수는 광주가 5만8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천명이 감소했다.

전남도 6만4천으로 3천명이나 더 늘었고 전입신고 건수도 많아지는데 현재는 그 반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 솔라시티센터' 준공

25일 열린 '광주 솔라시티센터(Solar City Center)' 준공식에서 참석자들이 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신보

10억원씩 출연

광주은행

광주은행이 광주·전남지역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유통성 지원을 위해 지역 신용보증체단에 20억원을 특별 출연했다.

광주은행은 25일 광주신보, 전남신보와 각각 협약식을 갖고 내년까지 양측 신보에 10억원 총 20억원을 특별 출연키로 하는 한편 신보가 지역 영세 중기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면 이 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자금을 대출받는 기업에게는 최대 0.2%포인트의 보증료 할인, 0.5%포인트 내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도 주기로 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신보는 출연금을 재원으로 각각 100억원 총 200억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라며 "800여개 업체가업체당 평균 3천만원씩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역 신보와 협의해 저 신용자 및 취약계층 등 개인고객에 대한 자금 지원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백옥인 청장 재임



백옥인(사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주석  
임명에 성공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주석  
25일 '2004년 3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개정 이후 5년간 청장으로 재직한 백옥인 청장이 공개채용을 거쳐 청장에 재선임됐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부족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율촌 2산단, 황금산단, 광양식품산단, 대송산단, 갈사만 배후지 개발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단지별 특성에 맞는 기업유치율을 목표로 역동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준호기자 chkim@

"장애인 창업 힘내세요"

광주·전남 종합지원센터 오픈

장애인 창업 힘내세요

광주·전남 종합지원센터 오픈

광주·전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26일 문을 열고 장애인 창업 등을 지원한다.

광주시 북구 동림동 메디플러스빌딩 5층에 마련된 센터에는 224㎡의 면적에 장애인이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6개의 창업보육실과 회의실 등 8개 업종의 경비율은 인하돼 세부담이 들어난다.

경비율은 국세청이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단순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수입금액 대비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207

개 업종과 소득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 18개 업종을 합쳐 총 225개 업종으로 이삭집센터, 버스, 화물차, 택시, 간소한 축산양돈, 인터넷PC방, 전자오락실 등이다.

반면 소득률이 상승하거나 업종 경기지표가 호전된 도매석유류, 주유소, 소매의약품, 일반미용업, 여인숙 등 8개 업종의 경비율은 인하돼 세부담이 들어난다.

경비율은 국세청이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일정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보험·적금 깨 버티고

지역 '보험 해약' 건수 30% 늘어

광銀 예·적금 해지율도 급증세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생계유지 를 위해 보험이나 적금을 깨는 사람도 급증하고 있다.

25일 광주지역 금융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침체가 본격화 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보험과 은행 예·적금을 해약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보험의 경우 생명과 손해보험 모두 '해약'하거나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내지 못해 효력이 상실되는 '실효' 건수가 예년보다 30% 가량 늘었다. K보험과 외국계 L보험 광

로 폭증한후 1월 2천294건으로 안정세를 보였지만 2월 들어 2천607 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1~2월의 예·적금 해약 건수를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각 15.5%와 15.2%씩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생명보험 가입자의 해약 및 실효 건수가 지난해 4분기 218만5천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5.6%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환급금은 8조1천853억원으로 20.3% 늘어났다.

이와함께 생활비나 장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회복기관에서 소액 신용대출을 받는 사람도 늘고 있다.

예금해약은 지난해 11월 1천590 건, 12월 1천77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1월 1천494건, 2월 1천567 건의 해약을 기록했다. 적금 해약은 11월 2천822건, 12월 3천410건으

로 예금해약은 지난해 11월 1천590 건, 12월 1천77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1월 1천494건, 2월 1천567 건의 해약을 기록했다. 적금 해약은 11월 2천822건, 12월 3천410건으

## 버스·화물차·PC방 세부담 완화

유가상승에 따른 경비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단순경비율이 인상된다.

장부가 없는 경비지출은 소득의 일정비율을 비율로 인정받는데 이 비율을 인상해 소득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국세청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단순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수입금액 대비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207

개 업종과 소득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 18개 업종을 합쳐 총 225개 업종으로 이삭집센터, 버스, 화물차, 택시, 간소한 축산양돈, 인터넷PC방, 전자오락실 등이다.

반면 소득률이 상승하거나 업종 경기지표가 호전된 도매석유류, 주유소, 소매의약품, 일반미용업, 여인숙 등 8개 업종의 경비율은 인하돼 세부담이 들어난다.

경비율은 국세청이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일정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앞에서 지산주유소쪽으로 7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이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근린시설/점포 대표이사 010-7570-7525 아파트/빌라 손해연이사 010-9611-2017 주택/재개발 전자현물장 016-608-5991

소지자 대지/건물 김경기 최자기 비고

수도권 대1138,간169 111억 62억 신속양방

충남동 대538,간308 51,984년 28억 8종합금

문화동 대238,간756 25억 19억 8종합금

수거동 대50,간103 4,242년 10억 8종합금

증평동 대100,간921 5,911년 29억 7종합금

설원동 대137,간501 19,655년 13,939억 5종합금

농동동 대701,간160 63억 35억 예상장

소출동 대802,간1887 64억 36억 3천 7종합금

노원동 대683,간203 59억 45억 주식기금

자석동 대151,간213 5억 2억2천 8종합금

고공동 대6128,간7/9 31억 17억 휴가소

평촌동 대62,간208 2억 1억1천 원룸서비스

송정동 대127,간175 5억1천 3억8천 원룸24시간

소지자 대792,간149 11억5천 5억2천 비고

소지자 대792,간149 11억5천 5억2천 비고